

社說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제공모 졸속행정 아닌가

광주시가 추진중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용설 시장 취임 이후 결정된 2차 공모도 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는 순수한 민간자본을 투입,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지원, 휴양시설·호텔·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골프장만 덩그러니 영업중이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겨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광주시의 '애물단지'인데 이대로 가다간 아예 '없던 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위한다.

물론, 이번 2차 공모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향서 제출 과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기로 하는 등 광주시의 태도는 다소 전향적인 것 같다. 하지만, 사업 관련 서면 질의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냉랭하기만 한 실정이다. 앞서 올해 초 1차 공모에선 1개 업체가 4개 항목을 질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을 반증한다.

광주시는 오는 9월 7일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로 넘어갔다. 그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다. 그동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익성 담보 등 불완 요소로 인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광주시의 공모가 저조한 원인조차 살펴볼지 못하고 제공모를 서둘렀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앞서 밝힌 대로 평가 방법만 일부 보완했을 뿐, 1차 공모 기준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죄무유기' 책임도 면키 어렵게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나. 어차피, 장기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으나, 역시나 불투명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민선7기,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었다면 무엇보다 좋을 일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고, 또 그러고도 남았다.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면 결국에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재차 새겨야 한다.

이제 막 출발한 '이용설호'가 가시밭길을 마다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가시밭길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 수출 대외리스크 해소에 지혜 모아야

통상환경 악화로 지역 수출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경제지표나 연구분석 자료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경제의 걱정이 크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주의 통상정책으로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 자동차산업의 특징 및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자동차산업 연간 생산액은 2016년 기준 14조2천억원으로 역대 제조업 생산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60억9천만달러(2017년 기준)로 광주 전체 수출액의 40.7%에 달한다. 수출 비중은 미국 50.1%, 멕시코 7.1%, 캐나다 6.7% 등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 보니 미국발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성장 동력 등 수출 다변화와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정부의 관세부과를 막아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하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보다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 비중이 26.1%(29개사)로 호전 전망 22.5%(25개사)보다 높았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이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 49.1%가 '미-중 무역분쟁'을 지목하는 등 대외리스크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이는 지역 최대 산업인 자동차 수출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보니 벌어지는 상황들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역경제는 지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하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성장 동력 등 수출 다변화와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정부의 관세부과를 막아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시론



강용 학사농장 대표

연일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엇그제 소나기는 달귀진 프라이팬에 몇 방울의 물이 튀듯이 잠시 내려 비가 왔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확 폭염, 최악의 열대야 그리고 극심한 가뭄 등 경신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들을 매일매일 갱신하며 태풍을 맞은 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프리카'라는 신조어처럼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4월의 폭설로 폭격을 맞았던 농촌은 또다시 폭염과 함께 동반한 46년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대처처럼 농업인들의 가슴도 타들어 갑니다. 흉작으로 폭등하는 농산물은 물가불안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며 생산 농가들과 소비자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연속 가뭄이 들었던 적이 고구려가 13회, 백제가 2

7회, 신라가 59회, 고려 역시 36회 그리고 조선은 99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최악의 가뭄은 1904년과 1973년입니다. 1904년에는 왕가뭄이라고 할 정도였고, 1973년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겨우 91mm로, 평균 강수량 1300mm의 1/10도 되지 않았으니 그때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기억으로 보면, 폭염과 가뭄은 사실 매년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이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라고 하듯이 1994년에는 폭염으로 수천명이 사망했으며, 2016년 8월에는 관측 이래 최악 폭염, 2015년에도 40년만의 최악, 2013년에도 90년만의 최악, 2012년에는 104년만에 최악의 물가 물이라며 정부에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2009년에도 몇 년간 반복되는 가뭄으로 식수가 고갈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듯 언제부터인지 가뭄과 폭염은 특별히 다친 재앙이라기 보다 항상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 재앙같은 현실에서 과거는 지금이든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들을 찾아보면 '상

황실'을 운영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저수지를 준설하고, 수문을 개방하고, 관정을 개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반복되는 문장 외에는 특별히 들은 기억이 없으며, 그나마 가뭄과 장마와 홍수를 조절하던 4대강 사업은 논의할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매년 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 누군가가 말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내년엔 누군가 다른 분이 또 현장에 나가서 같은 대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도 되지 않고, 토양은 비가와도 지하로 잘 스며들지 않는 석회암이 많아 지하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는, 농업 선진국이자 수출국입니다. 한정된 물이지만 수요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물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구가 주산지던 사과를 이미 DMZ 넘어 강원도 이북에서도 재배

가 되고,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는 바나나가 자라고, 수입하거나 외국여행에서나 먹었던 귀해 보이던 열대과일들도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포함한 한반도의 대부분의 생태지도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이변'이라는 단어 하나를 구실삼아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 반찬 저 반찬 여러 가지 만들어 상다리 휘어지게 여기저기 올려놓는 것도 대책이겠지만, 무슨 요리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생각해서 사전에 재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레시피에 충실하여 무슨 요리를 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달 익은 열실 과일을 미리 따먹는 것 같은 인공강우 외에,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사회 각 부분별로 실제적인 대책과 발전 방안을 만들어가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볼 때쯤 폭염이 견고하고 비가 내리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기고



이경숙 서림교회 목사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 않는 듯하다. 대부분 젊은 혈기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적 충돌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혼 문제를 단순히 결혼으로 드러난 외모와 학벌, 지위, 경제적, 가족 관계 등을 따지고 견주는 데만 골몰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인생 여정에서 연애나 결혼만큼 중요하고 오래 공부해야 할 일이 또 있을까? 남녀의 감정 교감이나 성적 쾌락 추구가 연애의 전부는 아니다. 사랑이란 한 인간이 존재를 걸고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마음공부이며 수행이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나서는 고된 과정이 바로 연애이고 결혼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움직임을 자기 존재 안에 지니고 있다. 부모와 자식, 친구들 간에는 물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합일(合一)을 향한 엄청난 욕구가 존재한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돌부터 시작해 더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본래 남성성(性)과 여성성(性)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다. 남자는 결모습은 남자지만 그 내면은 여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자는 결모습은 여자이나 그 속은 남성으로 형성되어 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의 또 다른 자기를 찾아 한군데 결합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학벌, 경제적, 지위, 가족 관계 등 수많은 조건을 따지면서 짝을 찾아나서는 것은 여러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까닭은 자기 존재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가 되는 짝을 찾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존재와 상대 존재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 작업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공부라 하는 것이고 수행이라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연컨대 이는 어불성설이다.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사랑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랑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연애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중에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연애든 결혼이든 하나의 내적 원리로 관통되어 있다. 그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인간이 자기 존재의 완전성을 실현해내기 위

연애와 결혼

해 상대를 찾고 결합한다는 치열한 마음수행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애는 느낌과 감정을 중심으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낭만을 즐기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결혼은 하나의 보편처럼 생활 유지와 노후 보장을 위한 호구지책쯤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연애든 결혼이든 참된 사랑을 기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애가 성숙해졌을 때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결혼을 하면 총족되어야 할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먹고살기 위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시댁이나 친정이 생겨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가운데 가정의 평화도 지켜나 가야 한다. 어디까지나 사랑이 근본이고 중심이어야 한다. 사랑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생활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은 저절로 풀려나갈 것이다. 연애와 결혼을 치열한 마음공부라 볼 때, 이는 곧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서는 구도적 삶의 과정이 된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고 비장하게만 생각하지 마라. 여기엔 마음설레는 감동적 움직임과 몸의 환희, 존재의 떨림이 수반되는 갖가지 기쁨과 희열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맞닿스러움을 잔뜩 음미하는 동안 고된 수행이 아닌 기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을 보느라 일 뿐이다. 보느라에 집착해서 본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연애에 필요한 수많은 공부 가운데 남성성과

성의 만남을 통한 존재의 합일만큼, 온갖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치열하게 이뤄지는 공부라 또 있을까?

연애와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성을 향한 움직임이다. 최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싱글 라이프를 선호한다고 한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 수입이 넉넉해지면 혼자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부담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귀찮은 것을 피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비록 고뇌가 스며들고 갈등이 찾아오며 슬픔이 덮치더라도 두 사람과 가족이 함께 웃고 부대끼며 걸어간다면 삶을 더 깊게 일굴 수 있다. 실패와 기쁨, 감동과 환희가 잘 버무려져 있다면 여기저기 독하고 쓴맛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이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삶이 무엇인지 통찰하려는 아들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수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기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끝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결코 그 어느 수도자들의 구도에 뒤지지 않을 아름다운 수행의 길임에 틀림없다.

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신고가 최선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금·약취유인·협박·퇴거불응·계속적 괴롭힘 등 광범위한 범죄를 말한다.

올해 초 한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끔찍한 데이트 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장면이 찍힌 CCTV영상과 폭행당한 여성의 피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운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5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경우가 645건으로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소의 '데이트 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무려 76.5%로 지속적 반복범죄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서워 혼자 참고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아니다.

사랑의 가면으로 포장된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의지이다.

경찰 혹은 주변 친구 등 지인에게

"도와줘" 한마디면 데이트 폭력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손을 내미는 순간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다.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제도의 활용, 그와 더불어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추악한 범죄이다.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믿고 더 좋은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희·공성경찰서 4남대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수입물가지수 3년8개월 만에 최고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울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